http://dx.doi.org/10.14774/JKIID.2016.25.2.151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5 No.2 Serial No.115 _ 2016. 04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 방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al Expression Metho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Experience In the Steven Holl's Museum Architecture

Author

장현주 Jang, Hyun-Ju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과정
박찬일 Park, Chan-Il / 부회장,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to the phenomenological point of view to explore a design method for providing a variety of spatial experience of the viewer according to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modern museum architecture. For that, this study intends to analysis and consider the Steven Holl's Museum applied to the phenomenological perception for architectural desig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Consider the spatial role and function of the Museum Architecture in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2)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architectural concepts and expressional method of Steven Holl 3) Finally, propose the utilization for the experiential space tha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teven Holl's phenomenological architectural concept is the basis of the perception and awareness and has connotations of temporality and it is figured out by the approach to the environment, sense and motion. 2) Steven Holl implement the architecture as a place of experience by connecting between the place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scenes and situations and planning the phenomenon of multisensory space. 3) The spatial experience appeared in Steven Holl's museum architecture is implemented through the diversity of the scene, the persistence of the situation, the autonomy of light and color, transparency of the haptic and the potential of the material and geometry.

Keywords

스티븐 홀, 공간체험, 뮤지엄 건축
Steven Holl, Spatial Experience, Museum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예술과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기능과 유형의 뮤지엄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의 뮤지엄은 전시, 교육, 공연 등 관람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가, 휴식, 산책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현대 예술작품들의 다양한 양식과 표현에 따라 뮤지엄 건축공간도 전시물의 단순한 배경으로서가 아닌, 다원적 의미생성의 매개체로서 기능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현대의 뮤지엄은 방문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미학적으로 차별화 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환경의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프래그머티즘 철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예술과 미학의 본질은 진실한 '경험'[1]을 통하여 지각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모든 경험은 신체와 정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다"[2]고 말하며 모든 경험은 주체와 객체, 혹은 자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뮤지엄 건축에서 존 듀이가 말하는 상호작용적 경험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람하는 주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culture@konkuk.ac.kr
** 이 논문은 201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존 듀이는 그의 저서인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최고의 경험은 혼자만의 감정과 감각 속에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능동적이고 빈틈없는 교류를 통한, 사물과 사건들의 세계와 자아의 완전한 상호 침투(interpenetration)를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존듀이,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13, p.42
2) 존 듀이, 앞의 책, p.134

의 '지각적 해석'과 '의미생성'에 일조하기 위한 공간 환경의 조성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즉, 현대에 있어서 뮤지엄 공간은 관람자(방문자)의 다양한 사고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써 작용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의 뮤지엄은 예술을 향유하는 관람자들의 비일상적 경험을 통한 지성과 감성의 전이적 공간이어야 하며, 관람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의 제공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뮤지엄 건축에 있어서의 다양한 체험적 공간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현상적 지각 경험을 건축공간의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을 대상으로 분석, 고찰하여 정서적 체험과 의미생성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뮤지엄 건축공간의 디자인 방법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건축을 구현하는 건축가인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을 대상[3]으로 뮤지엄 건축에 있어서의 관람자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미디어적 기능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스티븐 홀은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자신만의 건축 담론으로 발전시켜온 건축가이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여러 저서에서 인간이 건축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건축개념들이 어떻게 그의 뮤지엄 건축에서 디자인되고 구현되었는지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흐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뮤지엄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들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뮤지엄 건축의 공간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해 개괄한다. (2)3장에서는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과 구현방법을 고찰한다. (3)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현상학적 건축개념들이 그의 뮤지엄 건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한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적 표현방법을 통하여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하여 관람자의 지각과 감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험적 공간'의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 현대의 뮤지엄 건축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미생성'의 장으로서의 공간 디자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2016년 현재 완공된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한 분석 자료가 확보 가능한 6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뮤지엄 건축의 개념변화와 현상학적 접근의 의미

'화이트 큐브'라는 용어는 장식적인 디자인을 배제한 백색의 공간이 전시물의 배경이 되는 뮤지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 '화이트 큐브'는 수집과 진열이 목적인 시각중심의 '수동적인 뮤지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현대의 뮤지엄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을 넘어서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 경험의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기대되어지고 있다. 피터 버고(Peter Vergo)는 전통적 뮤지올로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뉴뮤지올로지'(뮤지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를 주창하였다. 뉴뮤지올로지는 뮤지엄의 역할을 사회 안에서 새롭게 재규정하고 문화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살아있는 화석'으로의 뮤지엄을 타파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4] 이러한 '뉴뮤지올로지'의 의미적 전환은 뮤지엄에서의 새로운 소통과 교육, 관람자 참여에 관한 연구로 이어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후퍼 그린힐(Hooper Greenhill)은 새로운 뮤지엄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하여 뮤지엄과 관람객의 새로운 관계적 변화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5]

<그림 1> 후퍼 그린힐의 박물관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는 종래의 뮤지엄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갖는 일방향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에서 관람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박물관 교육을 연구한 조지 하인(G. E. Hein)은 자신의 관점이 뮤지엄과 이용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가장 전망 있다고 주장하며 "구성주의 박물관은 박물관 이용자들이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 짓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한다"[6]고 말한다.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 짓기 위해서는 관람자 스스로가 뮤지엄의 커뮤니케이터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인은 경험이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핸즈 온(hands-on)'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인즈 온(minds-on)'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뮤지엄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7] 뮤지엄에서 그가 말하는 '마인즈 온'

4)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p.11
5) 추여명, 의미구성으로서의 뮤지엄 교육, 홍익대 석사논문, 2013, p.28의 그림 재구성
6) 최석영, 하인의 구성주의 박물관 교육론, 민속원, 2012, p.114

으로서의 경험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경험이 아닌 정서적, 감성적으로 체험되고, 이를 통하여 관람자들의 새로운 해석이 형성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즉, 뮤지엄에서의 진정한 체험이란 관람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지각을 통해 대상과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와 같이 관람자의 '경험'이 중시되는 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변화는, 전시환경으로서의 공간체험이라는 측면으로 그 관점이 확대되어진다. 뮤지엄에서 공간체험은 해석의 주체로서의 관람자가 전시와 예술을 이해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모든 경험은 기억과 회상을 통하여 비교의 행동을 시사한다. 이렇게 체화된 기억은 공간이나 장소를 상기하는 근거로서 기능하며 본질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8] 이러한 경험은 현대의 뮤지엄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기능중심의 뮤지엄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관람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은, 뮤지엄에 담겨있는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들을 보다 밀접하게 관련지어 다양한 감응과 체험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험 중심의 뮤지엄에서 공간은, 예술을 이해하는 조력자이자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건축에서는 이미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실존주의의 등장 이후, 현상학적 관점에서 인간 주체의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이 진행되어져 왔다. 유하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는 그의 저서 '건축과 감각'에서, 건축 작업의 감각을 통한 실존적 경험과의 관계맺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묘한 작용이 일어난다. 나의 감성과 연상(associations)은 공간으로 넘어가고, 지각 및 사고를 유도하고 해방시키는 공간의 분위기는 내게로 건너온다."[9] 그는 예술과 관람자의 조우에 있어 정서적인 감응을 서술하며 공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박물관의 환경과 학습에 대해 연구한 존 포크(John h. Falk)는 "공간은 디자인에 의해 창조되며, 사실상 정의된다. 진열품과 전시의 수준에서. 마지막으로는 건물의 수준에서. 관람자의 경험은 공간의 창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0]고 주장하며, 공간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뮤지엄에서 건축공간에 대한 관심은 현상학적 관점과 상응하는 면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및 경험과 체험에 본질을 둔 현상학적 관점은 현대의 뮤지엄 건축이 지향해야 할 공간적 접근에 대한 의미 정립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현대의 뮤지엄 건축에서 공간 환경의 중요성을 메를로 퐁티(Merleau Ponty)의 공간적 조망에 대한 견해로 설명하여 볼 수 있다. "내가 대상을 고정시킬 때, 나는 그 속에 정착하나 그러한 시선의 정지는 그 운동의 양상일 뿐이다. 나는 대상의 내부에서 조금 전에 그 모두를 훑어보았던 탐색을 계속하고, 단 한 번의 운동으로 풍경을 다시 닫아주고 대상을 열어준다...(중략)...내가 대상을 보고자할 때, 대상-지평구조, 말하자면 조망은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조망이 대상들의 숨겨지는 수단이라면 또한 대상들이 폭로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대상에 주목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거주한다는 것이 되고 그로부터 모든 사물을 모든 사물이 표현하는 국면에 따라 파악한다는 것이다."[11] 여기서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대상과 조망의 관계는, 뮤지엄 건축에서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건축이 하나의 예술로써, 관람자와 접촉하고 관계 맺는 공간의 잠재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의 뮤지엄 건축공간은 지성과 감성이 결합하는 장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관람자들의 경험들은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생성해내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대의 뮤지엄 건축에는 예술과 건축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환경의 제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3.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과 구현 방법

스티븐 홀의 건축사고는 초기 유형학적인 관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만의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그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현상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다양한 감각과 지각의 경험을 그의 건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적 경험은 우리가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고 체험하는데 있어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은 그의 저서들[12]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표 1>

<표 1> 스티븐 홀의 저서와 현상학적 건축개념

구분	저서명	내용	년도
1	Anchoring	정박	1989
2	Intertwining	상호얽힘	1996
3	Questions of perception[13]	현상적 영역과 지각	1994
4	Parallax	시차	2000
5	Idea and phenomena	아이디어와 현상	2002
6	Luminosity / Porosity	발광 / 다공성	2006
7	Architecture spoken	프로교토/응축/다공성/도시주의	2007
8	Scale	스케일	2012
9	Color Light Time	색 빛 시간	2012

7) 최석영, 앞의 책, p.24
8) Juhani Pallasmaa, 김훈 역, 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1993, p.103
9) Juhani Pallasmaa, 위의 책, p.16
10) 존 포크 외, 노용 외 역, 박물관 교육의 기본, 미진사, 2007, p.153
11) 메를로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pp.124-125, 339
12) 작품집을 제외하고 스티븐 홀이 직접 집필한 저서 중에 현상학적

<표 1>의 9개 저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들은 지각과 인식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다. 3번과 5번의 저서에 대한 내용은 현상적 지각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1, 2, 4번의 저서에서 주장하는 3가지 현상학적 담론으로 압축되어진다. 또한 6, 8, 9번 저서의 내용은 현상적 지각경험을 위한 표현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7번 저서에서는 프로젝트를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프로교토와 도시주의는 현상학적 건축개념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응축은 정박으로 설명되어진다. 따라서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은 Anchoring(정박)과 Intertwining(상호얽힘), Parallax(시차)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3가지로 압축되어진 각각의 개념들의 의미를 고찰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개념들의 내용적 이해에 기반을 둔 현상학적 건축개념과 구현방법의 관계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3.1.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

(1) Anchoring

건축은 항상 고유의 대지에서 형성되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 의존적이다. 정박(anchoring)은 장소와 상황에 관한 개념으로 모든 건축은 대지로부터 시작한다. 스티븐 홀은 이 책을 통해 대지와 환경에 대한 건축적 접근방법으로 정박(anchoring)에 대한 개념을 역설하였다. 그는 "건축은 상황의 의미를 수집하여 제자리에 융합함으로써 물리적 및 기능적 요구 사항을 초월한다."[14] 고 말하며 대지와 건축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역사와 문화, 풍경, 기후변화 등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형이상학적인 경험을 위한 건축적 개념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지는 건축을 통해 그 고유성을 발현하며, 건축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장소라는 진정한 의미를 형성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메를로 퐁티의 '대상과 조망에 대한 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스티븐 홀은 "건축과 대지는 경험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형이상학적이고 시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15]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 장소만의 환경적 특성은 그의 건축공간에서 직관과 영감에 의한 '관계맺음'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또한 대지의 역사와 환경이 건축공간에서 빛, 공기, 냄새, 주변 색, 시간의 경과, 재료 등과 융합하여 고유의 장소성을 구현한다. 홀은 욱스말 수도원과 솔크 연구소를 예로 들며, 드라마틱하게 삽입되어진 건물과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욱스말 수도원에서 중정이 담고 있는 시간은 투명하지만 기능은 확정적이지 않다. 태양의 궤적을 따라 포착되어지는 경치는 먼 산들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된다. 운동장을 지나 회관의 언덕을 올라서 다시 그 거대한 중정을 되돌아보는 체험은 건축미를 극대화한다. 건축과 대지가 현상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루이스 칸의 솔크 연구소는 바다에서 반사되는 태양빛이 중앙의 광장을 가르며 흐르는 작은 개울에서 반사하는 빛과 어우러진다. 특정 시간대의 바다와 광장은 물에서 비추어지는 자연광의 현상에 의해 융합한다. 대지와 장소에 건축과 자연이 형이상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16] 상기의 두 사례는 눈이 구별하는 것과 지각이 결합해서 하나로 보는 것. 즉, 장면의 전환에 따른 근경, 중경, 원경의 중첩적 현상을 통하여 건축과 환경이 융합된 경험을 제시한다. 이는 건축 자체가 또 다른 환경이 되어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의 장소성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지에 응축되어 있던 특정한 장소성은 건축의 체험을 통해 드러나며, 현명하게 정박된 건축은 주변 환경과 융합되어 그 존재적 의미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다.<그림 2>

<그림 2> 좌: 욱스말 수도원, 우: 솔크 연구소

(2) Intertwining

앞의 항에서 살펴본 'Anchoring'이 장소에서 건축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라면, 'Intertwining'이라는 현상학적 관점은 인간의 감각을 통한 지각과 공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인간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지각적 사고의 상호얽힘(intertwining)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스티븐 홀은 캐나다 횡단열차에서 나선형 터널을 통과하며 느낀 기묘한 현상적 경험(감각과 지각의 뒤섞임)을 통해 자신의 건축철학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의 건축적 사고는 이전의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감각과 지각의 현상에 대한 탐구로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소'로서의 현상학적 건축개념이 '공간'으로 구체화되어지며, 공간 안에서 다감각적인 현상들을 지각하게 한다. 스티븐 홀은 그의 저서 'Intertwining'에서 오래된 돌 벽에 앉아 경험했던 한 낮 태양운동의 현상적 경험을 통해 감각적 지각의 얽힘(enmeshing)을 설명한다.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햇빛은 벽 아래 긴

건축사고와 개념을 화두로 기술하는 문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3) A+U(1994년 특집호)에서 다뤘던 주제로 스티븐 홀은 현상적 영역을 11가지의 카테고리(투시도, 색, 빛, 방의 공간, 시간, 물, 소리, 비례, 스케일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각경험에 대한 방법론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저서는 2007년 단행본으로 재발행 되었다.

14)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p.9

15) 현대건축사편집부, STEVEN HOLL, 현대건축사, 2006, p.15

16) Steven Holl, 앞의 책, pp.9-10

그림자를 드리우며 불규칙한, 볼록한 돌, 오렌지와 갈색의 햇빛의 빛남은 보라와 회색의 그림자 색조에 의해 극적으로 향상된다. 또 다른 순간에 태양은 통과하고 벽은 완전하게 그림자로 지각된다."[17] 그가 경험한 빛의 현상은 재료, 질감, 색상, 시간 등과 결합하여 감각적으로 중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감각적인 지각의 얽힘은 앞 장에서 언급한 조지하인의 '마인즈 온'과 연계될 수 있으며, 다양한 감각의 지각들이 하나의 복합적인 경험 안에서 특정한 분위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감각적인 개념은 메를로 퐁티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되어진다. "감각들은 사물의 구조에 열림으로써 상호간에 의사소통 한다. 사람들은 유리의 경성과 연성을 보고, 유리가 투명한 소리를 내면서 깨어질 때 나는 그 소리는 눈에 보이는 유리가 날라다준다. 사람들은 강철의 탄성, 붉게 물든 강철의 전성(展性), 대팻날의 경도, 대팻밥의 부드러움을 본다."[18] 퐁티가 서술하는 이러한 재료의 경험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과 더불어 후각, 청각의 공감각으로 지각하게 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각들의 융합에 의해 더욱 다양한 현상적 체험을 유도한다. 이러한 다감각적인 지각현상을 구현하기 위해 스티븐 홀은 물성과 촉각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홀은 베르그송의 저서 '물질과 기억'을 통해 그가 쌓아온 직관과 영감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촉각이 모든 감각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촉각적인 현상으로 시각 이상의 감각들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색상 및 재료의 질감에 대한 지각과 물리적, 심리적 현상들이 얽혀진 감각들은 비일상적인 공간적 체험을 제공한다.[19] 이처럼 감각과 지각의 상호얽힘을 생성하는 공간체험의 현상들은 관찰자의 선험적 경험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Parallax

근대 이후 실존주의 철학의 발전으로 건축공간에서 인간의 신체와 공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공간을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몸', '신체'라는 현상학적 관점은 시지각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각적 경험을 활성화시킨다. 시차(parallax)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주체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차이라고 설명되어진다. 시차는 스티븐 홀 스스로가 관습적인 건축을 탈피하고자 과학의 활용으로 접근한 현상적 담론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건축의 정신과 과학의 발견들과 인식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20] 또한 속도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형이상학적 현상들을 '움직임'이라는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과 현상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시차의 개념 도입은 신체적 지각 경험에 대한 그의 탐구를 가속화 시켰다. 홀은 그의 저서 'Parallax'에서 "몸은 우리의 존재와 공간 지각의 본질이다. 우리가 공간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몸은 미완성의 일정한 상태로 이동한다. (중략) 지각과 인지는 시간 그 자체의 이해와 함께 건축공간의 용적을 측정하므로 균형감을 갖는다."[21]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스티븐 홀은 건축공간에서 감각과 지각의 얽힘과 더불어 신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관찰자의 시점과 시간에 따른 공간의 현상적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는 다시점적인 공간의 구축과 관람자의 연속된 움직임을 통하여 구현되어지며, 이러한 다시점과 관찰자의 움직임에 의한 공간구성은 홀이 주장하는 공간적 시차로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이동의 시차는 건축공간에서 관람자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시지각적인 위치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감을 생성시킨다. 또한 곡면의 공간과 직선의 공간들은 서로 대비적으로 접합하며 그 사이에서 관람자는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각의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의 차이에 의해 변화된 공간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다양한 공간적 깊이를 형성해낸다. 건축공간에서 연속적으로 경과하는 시간은 기억과 감각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경험이다. 또한 시간의 현상은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며 빛과 물성의 변화에 의해 전개된다. 이렇게 축적된 시간의 흐름은 관조적 견지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체현(體現)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홀이 주장하는 'Parallax'는 환경에 의한 장소의 경험과 얽히고,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재구성되는 현상적 공간과 융합하며, 관람자의 공간에 대한 풍부한 지각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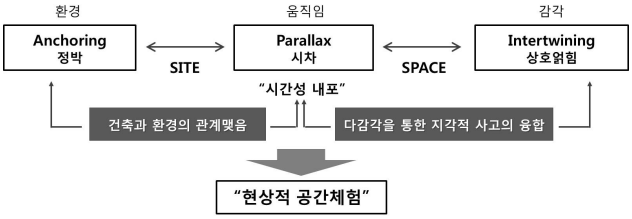
3.2. 현상학적 건축개념의 구현방법

앞의 절에서 고찰한 스티븐 홀의 3가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들이 내포하는 의미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차를 의미하는 'Parallax'를 중심으로 하는 'Anchoring'과 'Intertwining'과의 상호관계로 설명되어진다.

Parallax의 개념은 다시점과 위치 변화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Anchoring과의 관계로 살펴보면 사이트에 대한 관점으로서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또한 Intertwining과의 관계에서는 공간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며,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3>

17)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12
18) 메를로 퐁티, 앞의 책, p.350
19) 二川幸夫, スティーヴン・ホール作品集 第2巻 1999-2012, ADAエディタトーキョー, 2012, p.10
20) Steven Holl, 이원경 역,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미메시스, 2012, p.66
21)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p.13



<그림 3>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과 구현방법의 관계도

(1)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스티븐 홀은 건축을 구현함에 있어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은유적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현상적 경험들을 응축한다. 그의 이러한 은유적 개념 설정은 프로젝트가 지어질 특정 장소에서부터 시작한다. 장소로부터 출발한 영감에 의해 융합된 아이디어는 대지의 환경과 관계 맺으며 현상적 건축으로 구현된다. 스티븐 홀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 풍경, 색, 계절, 기후 등의 환경적 상황을 절묘하게 건축공간으로 유입한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 랑겐로이스의 외곽에 있는, 그 지역의 와인 저장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지어진 로이지움 관광센터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완만하게 경사진 포도농장의 지형에 따라 기존 와인 저장고, 관광센터와 경사로, 호텔과 스파의 기능을 하는 3개의 레벨(지하, 지표, 지상)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그림 4> 로이지움 관광센터, 오스트리아 랑겐로이스, 2003

관광센터 외관의 기하학적인 개구부는 900년 전에 지어진 석조 저장고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녹색의 유리병을 재활용한 창을 계획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풍부한 자연의 색을 내부로 유입시킨다. 또한 앞부분이 포도밭에 묻힌 채 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관광센터의 매스는 기존의 지하 저장고로 향하는 경사로와 대지의 축을 연결한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는 경사로는 지역의 오래된 저장고로 연결하며, 샌디드 알루미늄으로 된 외피는 경사로를 따라 펼쳐지는 수공간에 의해 반사되고 굴절되는 빛의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지형의 위계상 제일 위쪽에 배치한 호텔의 건물은 메쉬로 이루어진 반투과적 표피와 지역성이 강한 색으로 표현한 이중적인 외피를 통해 외부의 빛을 유입하며 건물 외부에 펼쳐진 포도밭의 풍경과 융합된다.

스티븐 홀은 건축과 환경을 관계 맺게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의 장소적 특성을 이용한다. 코네티컷에 있는 풍광 좋은 정수장 단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휘트니 정수 시설 공원은 모든 시설과 시스템을 지하에 두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공원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은 미시에서 거시로의 변환이다. 이는 정수 공정의 분자에서 지상 공원으로 변화하는 스케일을 의미하며. 정수과정의 6단계를 표현한 녹지공간과 물방울을 형상화한 관리실 및 관람객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의 녹지구역은 정수장의 여과과정에 따라서 각각의 해당 시설과 연계되며 지면의 채광창(bubble lenses)을 통해 지하공간에 자연광을 유입시킨다.<그림 5>

<그림 5> 휘트니 정수시설, 코네티컷, 2005

이처럼 스티븐 홀의 건축은 대지와 상호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지형과 경관에 융합된다. 또한 장소의 상황과 현상적 아이디어를 병합시켜 건축공간과 환경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장소성은 지역적 맥락과 건축적 프로그램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구현된다. 이러한 예는 워싱턴 시애틀 대학의 캠퍼스 안에 위치한 성 이구나티우스 성당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성당은 종교적인 기능과 더불어 60여개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긴 직사각형 대지의 방향에 따라 다른 공간을 배치하고 돌 상자에 담긴 일곱 가지 빛의 병들이라는 은유적 개념을 통해 예수회 가톨릭 예배 프로그램을 삽입한다. 이러한 건축개념에 의해 전체적인 매스의 볼륨과 입면이 형성되며, 예배 과정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또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솟아 있는 불규칙적인 형상은 예수회의 영적수련을 위한 빛의 특성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기도 한다.<그림 6>

<그림 6> 성 이구나티우스 성당, 시애틀, 1997

이와 같이 장소의 환경적 상황을 반영한 건축은 시간의 흐름과 관찰자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현상적 공간을 구현한다. 아이오와 주에 있는 미술대학의 신축건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간들은 스티븐 홀의 건축과 환경에 대한 현상적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 건물의 평면적 특성과 붉게 녹슨 코르텐 강철로 이루어진 비정형적인 형태는 석호와 석회암 절벽에 인접한 장소의 지형적 기하학을 반영하고 있다. 오래된 석회암 채석장이었던 자리에 물이 고여 형성된 석호 위에 캔틸레버 구조로 지어진 미술대학 건물은 호수를 향해 열려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석호로 뻗어 있는 다리를 중심으로 각각의 수평축을 형성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코르덴 철판과 강철봉으로 이루어진 난간과 층계는 수직축을 연결하는 구조체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형성된 중앙계단은 여러 각도로 꺾인 면들로 조립되어져 있으며, 여러 시점에 의해 내려다보이고 중첩되는 층의 겹침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캔틸레버로 이루어진 도서관과 스튜디오는 내부공간에 낮은 단차로 각 공간의 영역을 구획하고 있으며, 동선 상에 슬로프와 전면창을 배치하여 호수를 내려다보며 산책하듯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공간적 변화를 지각하게 한다. 전면창의 수직 프레임을 형성하는 붉은 강철의 다소 강한 물성은 투명유리와 대조를 이루며 자연풍광과 어우러진다. 뿐만 아니라 물에 반사되는 빛의 현상은 내부공간을 밝게 비추며 석호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내부에서 유리를 통해 보이는 또 다른 내부공간들의 관입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밖으로 열린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 한다.<그림 7>

<그림 7> 아이오와 미술대학, 2006

이처럼 스티븐 홀은 장소가 지니고 있는 대지의 속성, 주변 환경, 상황들을 프로젝트마다 고유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건축공간에 다양한 현상적 경험을 구현한다. 이렇게 장소에 녹아든 건축과 환경은 방문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공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재구성되는 현상적 순간은 지나온 시간들의 중첩에 의해 환기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장소적 의미의 생성을 실현한다.

(2)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개념들은 건축공간에서 대체로 빛과 색의 현상, 그리고 시간의 응축으로 나타난다. 그의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연속적으로 경과하는 시간에 따라 기억과 감각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축적된 형이상학적인 현상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홀은 "오직 건축만이 돌 표면의 질감과 촉감, 잘 닦여진 나무의자의 광택,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냄새의 경험, 그리고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 스케일, 비율과의 신체적 관계를 제공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감각은 하나로 통합된다."[22]라고 역설하며 건축공간의 환경(기하학, 물성, 빛, 색, 기후 등)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발현시켜 관찰자의 다감각적 지각을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의 저서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판테온과 롱샹성당의 건축적 경험이 내포되어 있다. 두 건축물에서 체득한 빛과 색의 현상적 지각의 경험들은 스티븐 홀에게 건축적 영감으로 작용하여 그 만의 현상적 디자인 방법론으로 구체화된다. 그 중 빛은 관찰자의 지각 체험을 극대화하여 그의 현상적 건축을 구동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스티븐 홀은 현상적 빛에 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연광이 빚어내는 자발적인 형상과 투명도에 따른 미묘한 변화를 탐구한다. 또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공감각적 지각작용을 구현하기 위해 빛을 여과하는 매개체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재료의 투명성에 의해 빛의 유입을 조절하거나, 빛이 투사되는 표면의 질감을 다양하게 형성한다.<그림 8>

<그림 8> 빛을 여과하는 매개체의 다양성
좌: 크랜브룩연구소 1998, 중: 대양갤러리 2012, 우: 스위스대사관 2006

이와 같이 자율적으로 확산, 투과, 반사, 굴절, 투영되는 빛의 현상들은 시간의 흐름과 관찰자의 움직임을 통해 더욱 다채롭게 전개되며, 다감각적 얽힘을 통해 풍부한 지각적 감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스티븐 홀은 빛과 그림자를 관악기와 타악기의 두드림에 비유하며 어둠 속에서 침묵하는 공간의 풍부한 물성을 발현시킨다고 설명한다.[23] 또한 밝음과 어둠 사이의 회색 영역 즉, 빛과 그림자의 경계부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반(半)음영의 현상적 경험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홀의 건축공간에서 밝음과 어둠의 현상들은 공간의 기하학, 볼륨, 물질, 비례, 스케일 등과 결부되어 형이상학적 감각을 지각하게 한다.

휘트니 정수 시설 공원에서 유일하게 지상에 세워진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뒤집힌 물방울 형태의 구조물은 주변경관의 초록빛과 외피의 은빛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물에서 산란하는 것 같은 빛의 현상을 지각하게 한다. 또한 물방울 형태로 인한 내부공간의 곡선(curves) 구조는 사선의 천창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빛의 볼륨을 형성하고, 태양의 각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유동하는 빛과 그림자의 현상을 구현한

<그림 9> 곡면에 의한 빛의 볼륨
휘트니 정수시설, 2005

22) Steven Holl 외, Questions of Perception, William K Stout Pub, 2007, p.41

23) 二川幸夫, スティーヴン · ホール作品集 第1卷 1975-1998, ADAエディタトーキョー, 2012, p.19

다.<그림 9> 이와 같은 곡선 구조의 볼륨은 규칙적인 아크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율적이고 독특하다.[24] 불규칙적이고 불완전한 곡선은 주변 영역의 매개물을 통해 공간에서 빛의 흐름을 인지하게 한다. 또한 스티븐 홀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구멍(puncture)을 형성하여 건축공간에서 luminosity와 porosity를 구현한다. 이는 빛의 팽창, 굴절, 발산, 여과 침투 등에 의해 다양한 현상적 층위를 형성하며,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은 촉각뿐만 아니라 다감각적 지각의 진동들과 뒤섞인다. <그림 10>

<그림 10> Luminosity & Porosity
좌: 사파라티스트라트 오피스, 2000
우: 플래너 하우스, 2005

이처럼 홀의 건축공간에서 지각되는 모든 현상적 체험은 빛과 그림자의 결합에 의한 생성물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서로 다른 layer를 형성하며 중첩되어진다. 스티븐 홀은 이러한 빛의 다감각적 체험을 증폭시키기 위해 색을 촉매제로 사용한다. 색은 빛의 속성으로 존재되어진다. 하지만 색에 대한 지각은 빛의 파장과 물리적인 속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순수한 색의 개념은 없다. 나는 색의 개념을 감각의 개념과 같이 다룬다."[25]라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말처럼, 색은 빛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며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홀이 사용하는 색의 현상은 단순한 착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와 분리하여 빛과 시간의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전달한다. 또한 빛의 자극과 반응함에 있어 객관적인 인식보다는 관찰자의 심리적인 배경을 포함한다.

<그림 11> D.E Shaw 사무실, 1992

뉴욕의 금융거래 회사인 D.E. Shaw 사무실의 디자인 방법은 스티븐 홀이 일상에서 경험한 빛과 색의 현상으로 구현되었다.<그림 11> 어느 날, 그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완전한 흰색 복도의 벽에 기괴한 밝은 빨간색의 반사를 관찰했다. 그 현상은 건물 외부의 빨간색 자동차에서 반사하는 태양의 광선으로부터 투사된 것이었다.[26] 홀이 경험한 현상은 태양 빛의 색이 빨간 자동차에 반사된 빛의 색과 결합되어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지각된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물질이 착색된 직접적인 색이 아닌 자연광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사되는 현상은 자발적, 불확정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빛, 물, 시간,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현상적 레이어를 형성하여 공간적 깊이감을 모호하게 하고 빛의 변화에 대한 지각 경험을 증폭시킨다.<그림 12>

<그림 12>
불확정적인 빛과 색의 다양한 현상
좌: NYU 철학과 계단, 2007
우: 링크드 하이브리드, 2009

<그림 13>
보색현상에 의한 빛의 투영
성 이구나티우스 성당 내부, 1997

또 다른 예로, 성 이구나티우스의 성당에서의 보색 현상은 물질적인 착색과 자연광에 의한 반사색이 결합되어 영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이러한 색의 그림자는 움직임에 의한 시간의 흐름과 관찰자의 정서적 지각에 따라 각기 다른 숭고하고 초월적인 빛의 어른거림으로 체험된다. 또한 보색의 현상들은 공간의 기능과 접목되고, 종교적인 빛의 서로 다른 해석을 의미하며 은유적, 상징적으로 지각된다.<그림 13>

이와 같이 스티븐 홀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무형의 빛과 유형의 색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현상들은 주체적, 자율적으로 존재하며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간헐적 혹은 우발적으로 체험되어진다. 이러한 다감각적인 지각 경험은 관찰자의 심리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감성적인 공간체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미생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4.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과 특성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은 인식과 지각경험에 그 본질을 두고 시간성을 내포하며, 환경, 감각,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건축적 표현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또한 스티븐 홀은 대지에 응축된 건축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장소적 특성과 맥락을 활용하여 환경적 상황을 유입하거나 지형과 경관을 융합한다. 또한 자연광의 자발적인 형상, 반음영의 형이상학적 지각, 공간의 기하학과 물성을 통한 공감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을 구현하여 정서적, 지각적 의미생성으로서의 공간체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스티븐 홀의 대표적인 뮤지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앞에서 살펴본 그의 현상학적 건축개념과 구현방법의 관계에 따른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최종적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표 2>

24) Steven Holl, Color Light Time, Lars Muller, 2012, p.80
25) Steven Holl, 앞의 책, p.19에서 재인용
26) Steven Holl, 앞의 책, p.33

4.1.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표 2>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분석

작품명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2-1998) 핀란드 헬싱키	현상적 요소	키아즈마 (건물과 경관의 교차와 얽힘)
	프로그램	전시실, 극장, 카페, 매점, 아티스트 워크샵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도시축, 역사축, 문화축과의 만남과 교차에 따른 매스를 계획하여 대지와 지역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태양의 낮은 고도, 굽은 철 트러스 구조, 커튼월의 이중굴곡을 통해 헬싱키 특성을 반영한 자연채광이 가능하게 한다. 곡면과 곡선에 의해 확산되는 수평의 빛은 내부공간의 깊이감을 형성한다. 수평램프와 나선형 계단의 교차를 통해 시선의 흐름을 확장시키고 연속적인 머무름과 움직임을 유도한다. 톨루만에서부터 이어지는 수공간은 뮤지엄 동측 계단의 이동 동선과 연결되며, 낮에는 빛의 산란에 의해 외부 풍경의 반사와 투과를 반영하고 밤에는 내부 공간을 투사한다.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스틸과 주름 아연판, 샌드 블라스트 알루미늄 등 다양한 외피의 물성과 수공간을 통해 기후 및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빛의 현상들을 연출한다. 3가지 타입의 보타이 창에 의한 자연광의 유입으로 다양한 빛의 볼륨을 형성하고 벽면의 백색 플러스터 마감은 빛과 그림자의 질감을 형성하여 감각적 현상을 지각하게 한다. 또한 기울어진 천창과 선택적으로 절개된 창에 의해 연속적인 음영을 형성하여 시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반투명 단열재 유리판 사용으로 자연광을 조절하고 어두운 바닥의 반사효과로 내부동선에 절제된 공간 분위기를 형성한다. 구부러진 기하학에 의한 곡면벽과 비대칭의 뒤틀린 갤러리는 전시실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구성하여 정적이지 않은 침묵의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고 전시작품의 존재를 부각 시킨다.
작품명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Bellevue Art Museum (1997-2001) 미국 워싱턴주 벨뷰	현상적 요소	3중성, 3개의 행위(관람, 탐구, 창조), 3개의 시간
	프로그램	전시실, 교육실, 카페, 강당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3개의 매스는 갤러리의 주요공간과 통로를 구성하여 연속적인 움직임에 의한 공간체험을 제공하며, 3개의 빛과 시간이 결합하여 다양한 전시를 수용한다. 북측의 갤러리의 외부 도로와 면하고 있는 고른 조명은 일직선상 진행되는 시간을, 중정을 향해 열려있는 남측 갤러리의 내부로 굽은 기하학적 평면은 태양 위치를 반영하여 주기적 시간을, 동서 방향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단절된 신비로운 시간을 구현한다. 벨부 시내 중심부 교차로에 위치한 뮤지엄은 거리박람회부터 시작한 박물관 기원의 맥락과 연계하여 지면의 대형 창을 계획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개방성을 표현한다. 6개의 야외테라스는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고 체험의 촉매 역할을 한다. 주출입구와 연결된 복층의 중앙 포룸은 가장 크고, 밝은 공간으로 계획하여 개방성을 강조하며 곡선의 계단식 램프는 갤러리와 연결되는 이동 동선이자 포룸을 무대로 관람석의 역할을 제공한다. 3중성의 맥락은 내부 공간 구성, 프로그램, 빛의 유입 등 뮤지엄 전반에 걸쳐 재현되며 환경과 인간의 행위와 공간을 본질적으로 융합한다. 북측과 남측 갤러리의 전개된 매스 사이에 위치한 동측의 물의 정원에서 산란되는 빛의 음영은 전시공간에 투시되어 비, 바람 등에 의해 변화되는 그림자는 환경을 반영한다.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주출입구와 연결된 복층의 중앙 포룸은 가장 크고, 밝은 공간으로 계획하여 개방성을 강조하며 곡선의 계단식 램프는 갤러리와 연결되는 이동 동선이자 포룸을 무대로 관람석의 역할을 제공한다. 또한 천정의 발광하는 원형의 빛과 바닥, 반사 굽은 동선은 몽환적 분위기 형성한다. 굽은 3개의 매스 사이의 틈을 통해 건물 깊은 곳까지 자연광을 유입하고 지붕의 상이한 기울기를 통해 측창 , 고창을 계획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빛은 다시 외부로 발산하며 유동한다. 마주 굽은 2개의 매스 사이에 계획한 6중정의 보이드 공간은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되며 기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감각적인 빛의 현상들을 체험하게 한다. 동서 방향의 붉은 콘크리트 솔리드 벽의 기하학은 3개로 분절된 건축 매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알루미늄, 거친 질감의 붉은 콘크리트, 유리의 물성 대비는 각각의 매스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또한 분절된 매스는 계단식 램프와 중정을 통해 자유롭게 연결되고 테라스와 창을 통해 외부와 내부를 유기적으로 융합한다. 남북축 매스의 열린 공간에 의해 계획된 6개의 테라스는 빛과 색, 바람과 그림자 물의 정원 등을 구성하며 다감각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한다.
작품명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Nelson-Atkins Museum of Art (1997-2007)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	현상적 요소	Stone - Feather(기존건물과 증축건물), 5개의 렌즈(빛의 갤러리)
	프로그램	전시실, 도서관, 강당, 식당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물성 대비에 따른 기존 석조건축의 무거움과 증축건물의 유백색 유리 매스의 가벼움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정체성 및 지속성을 강조한다. 5개로 분절된 매스는 각각의 개구부와 조경의 교차를 통해 전시 동선의 흐름을 전환 시켜 우연적인 다양한 장면들을 전개하여 환경과 건축을 유기적으로 융합한다. 또한 지형의 연속적인 레벨차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동선을 연결하여 다시각적, 연속적 시점을 유도하고 비정형적인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반사연못 안의 34개의 채광창은 예술작품인 동시에 물의 현상적 투영의 그림자와 결합하여 지하 주차장의 조명 역할을 한다. 선형적인 다각도의 벽과 슬로프, 계단을 통한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빛의 흐름은 시차의 교차에 의해 다양한 시점을 병합시키고 개방감을 부여한다.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반투명과 불투명 재료의 혼재, 반사연못과 외부정원은 빛의 시간성에 의해 다채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존재감을 더욱 부각 시킨다. 반사연못의 채광창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빛의 발광과 바닥에 반사되는 그림자의 발광은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현상은 다양한 감각적 지각을 통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Breathing T 구조의 곡면은 다양한 빛의 볼륨을 형성하며 확산시켜 유연하고 유동적인 빛의 부드러움 질감에 의한 다감각적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곡선과 Y형태의 구조체는 어둠과 밝음의 다양한 그림자의 색을 중첩시켜 불확정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외피의 유백색 반투과 유리의 물성은 내부 공간에 균질한 간접적 빛을 유입하여 밝고 투명한 공간감을 형성한다.

작품명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Knut Hamsun Center (1994-2009) 노르웨이 하마뢰위	현상적 요소	몸으로서의 건물 : 보이지 않는 힘들의 싸움터
	프로그램	기념전시실, 도서관, 독서실, 카페, 강당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백야가 6주 동안 계속되는 노르웨이 하마뢰위 겨울의 낮은 태양과 계산된 빛의 각도는 내부공간에 사선으로 관통하며 투사되고, 벽면에 반사되어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존재를 체화 시킨다. '몸으로서의 건물' 이라는 컨셉은 장소와 프로그램의 결합을 의미하며, 내부의 코어가 건물의 뼈대역할을 하고 발코니와 외부계단은 건물의 환경적 상황과 결합하여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문학작품의 관점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을 표현하듯이 각각의 입면은 서로 다른 건축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옥상의 잔디지붕, 노르웨이 교회 특유의 토착양식인 타르를 바른 흑색 나무판과 스틸의 대조를 통해 초현실주의 작가 함순의 작품세계를 연결한다. 문학작품을 대하는 다양한 독자의 시선을 상징하듯이, 각각의 개구부를 통해 빛, 공기, 소리, 기후 등 자연환경을 융합하고 단단하면서도 유연함을 지닌 공간감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이동 동선과 시점에 맞춰 창과 외부로 연결된 계단을 계획하여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교차시킨다.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보이지 않는 힘들의 싸움터' 라는 컨셉은 내부공간에서 최상부창을 통해 사선으로 관통하며 쏟아지는 강한 빛의 라인이 벽에 부딪혀 굴절되고 맞은편으로 반사하는 현상들은 내부공간의 감춰진 충동을 활성화 시킨다. 또한 뒤틀린 외관을 둘러싼 외부 진입계단의 스틸부재와 타공판을 통한 기하학적 그림자와 음영의 대비는 방어적인 긴장감을 형성한다. 기울어진 벽면과 내부계단을 통해 역동적이고 다양한 시차를 제공하고, 내부 벽면의 흰색 거친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에 의해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의 현상들은 다감각적인 공간감을 형성한다. 함순의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특성을 적용한 3개의 발코니는 빛, 색, 소리 등의 현상적 장치를 통해 다감각적 지각을 체험하게 한다.
작품명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Herni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5-2009) 덴마크 헤르닝	현상적 요소	Treasure Boxes, shirt sleeve(셔츠 소매)
	프로그램	전시실, 미디어 도서관, 강당, 음악실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셔츠소매' 라는 조소적 형태의 차용과 흰색의 틸트업 콘크리트, 단색의 프레임, 녹지언덕을 통해 풍경과 건축을 융합한다. 남서쪽의 자작나무 광장으로 펼쳐진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수직프레임과 전면창의 투명성에 의해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형성한다. 또한 반사연못을 배치하여 수평적 시선을 확장시키고 빛의 산란과 굴절 등을 통해 주변 풍경을 반영한다. 여러 갈래의 셔츠소매가 접하는 부분은 내부공간의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동선을 형성하고 내부와 외부의 시차를 병합시킨다. 또한 셔츠소매의 갈래 끝에 벽을 계획하여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부로 열린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벽의 배치는 외부 입면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각각의 공간 흐름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Treasure Boxes' 라는 2개의 사각형 전시실과 상반되는 오목하게 구부러진 지붕의 유기적인 형상은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중첩시켜 모노톤의 비정형적인 공간감을 형성한다. 지붕 곡면의 레벨차를 이용한 측창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빛의 그라데이션을 내부로 유입하고, 표면의 질감변화를 통해 무광 또는 유광의 촉각적 그림자를 형성한다. 크고 작은 다양한 비례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은 가변성이 용이하며, 2개의 큰 중심축은 여러 공간으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동선의 흐름을 형성하고 시선을 중첩시켜 수평적 다시점을 통한 공간지각을 제공한다. 샌드 블라스트 유리를 통해 전시공간에 투과되는 균질된 빛은 개방적인 공간감을 형성한다. 또한 바닥 반사에 의한 빛의 확산은 지붕 곡면의 점진적인 빛과 중첩되어 공간의 감각적 지각을 풍부하게 한다. 여러 갈래의 셔츠소매가 만나는 지붕 곡면의 코너부분에서는 유입되는 빛의 방향성에 따라 밝음과 어두움의 변화를 통해 단층으로 구성된 공간의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지붕의 기하학과 외피의 패브릭 질감은 다양한 그림자를 형성하여 백색의 파사드에 다채로운 변화를 주고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게 한다.
작품명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Nanjing Sifang Art Museum (2003-2013) 중국 난징	현상적 요소	평행 원근법, Folding Circulation, 강과 안개
	프로그램	전시실, 커피숍, 서점, 큐레이터 숙소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	난징시의 진주강, 녹음과 함께 건축물이 하나의 자연경관으로 녹아들어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장소를 형성한다. 지면의 흑색 콘크리트 벽은 지상의 유백색 반투명 유리와 대조를 이루며 진주강의 물안개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구부러지고 모아진 조각적 형상은 대나무를 배치하여 지면과 시선을 분리함으로써 떠 있는 듯 부유하는 건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풍경에 삽입시킨다. 또한 필로티를 형성하여 지면에서 보여 지는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고 환경에 융합하고 있다. 흑색벽에는 수평의 대나무 질감을 형성하여 수평적으로 구부러진 각도를 극대화 하여 시점의 전환을 제공하고 태양 빛의 다양한 현상을 수용한다. 지형의 기울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구부러지는 지상 갤러리는 자연스럽게 관찰자의 이동을 유도하며 지면에서 산책하듯이 전시물을 관람하게 한다. 또한 바닥의 레벨차와 구부러진 벽에 의해 시점이 병합되어 원경, 중경, 근경의 전시물들이 중첩되어 다양한 감상 포인트를 제공한다. 최상층 갤러리의 끝에 전면 창을 설치하여 시선의 축을 확장하며 예전 명나라 도읍지였던 난징시를 조망할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는 연속된 시점을 형성한다.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	지상 갤러리는 반투명 유리의 이중적인 물성에 의해 낮에는 관람객의 실루엣을 제공하며 자연경관에 어우러지고, 밤에는 내부의 빛을 발광하며 조명 역할을 하고 강철 트러스 지지대의 소거함으로써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전시실에서 유일하게 각각의 공간이 만나는 구부러진 통로는 일방향 동선이 지루하지 않게 하고 설치 미술을 전시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지상의 백색 반투명 박스의 갤러리의 기울어진 벽과 천장, 노출된 구조물들은 내부에 빛을 조절하여 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예술품을 부각시켜 조우하게 한다. 지면에서 지상의 갤러리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외부의 수직 계단은 내부 수평동선의 느린 흐름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속도감을 부여하며, 내부 갤러리와는 또 다른 공간 체험을 제공한다.

4.2.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현상적 표현 특성

앞 절의 공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스티븐 홀은 뮤지엄 건축공간에서 다양한 장면과 상황의 전개를 통해 건축된 장소와 환경을 연결 짓고자 한다. 또한 의도된 시차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지각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구현하여 다감각적인 공간체험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방법 및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현상적 표현 방법과 특성

구분	표현 방법	표현 특성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에 의한 현상적 공간체험	수평적 시선의 확장 내부와 외부의 연속, 상호관입 레이어를 통한 시차의 병합 시점의 전환에 따른 조망의 중첩	장면의 다양성
	기후와 구조의 결합 장소와 지역적 맥락의 응축 지형과 경관에 순응 프로그램과 행위의 수용	상황의 지속성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에 의한 현상적 공간체험	불확정적인 그림자의 색 시간의 응축과 지속에 따른 변화 이중레이어에 의한 발광과 투영 낮의 어둠과 밤의 밝음 형성 반사와 산란에 의한 빛과 색의 진동	빛과 색의 자율성
	모노톤의 음영대비 빛의 여과에 의한 반음영의 중첩 물질의 간접적 형상 투사 표면질감의 은폐와 비은폐	물질의 촉각성
	직선과 곡선의 대비적 접합 비례와 스케일에 의한 시간의 정박 물성을 통한 공간적 환기와 감응 반투명과 불투명의 혼재	재료와 기하학의 잠재성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체험의 표현 특성들은 하나의 현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과 감각을 통해 다양한 현상들의 복합적인 지각경험을 형성한다. 스티븐 홀은 뮤지엄이 건축되는 장소와 지역적 맥락을 중요시 하고 지형과 경관에 순응하는 매스를 계획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과 건축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소통과 관계의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건축적 계획은 관람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점의 전환과 다중적인 건축적 조망을 중첩시켜 건축과 환경을 연결 짓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장소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구조를 결합시켜 뮤지엄 건축공간에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유입되는 빛은 불확정적인 그림자의 색을 연출하며, 시간의 응축과 지속에 따라 변화하는 다감각적인 현상들을 지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적 매스 사이에 삽입된 수공간을 통하여 수평적 시선을 확장시키고, 관람동선 상에 의도된 창을 계획하여 내부와 외부의 상호적 관입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적 장치들은 뮤지엄 건축공간에서 다양한 예술과 공간 환경의 총체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건축적 환경의 구축은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천정, 벽, 슬로프, 계단 등을 통해 다차원적인 공간체험으로 연결된다.

또한 스티븐 홀은 직선과 곡선, 수평과 수직 등의 기하학적 대비와 접합을 통해 내부공간에 다양한 레이어를 형성하고,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른 시차적 병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홀의 의도는 프로그램에 따른 관람자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며,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관점과 해석에 대한 새로운 방법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곡선과 곡면, 반투명과 불투명의 혼재를 통한 모노톤의 음영대비는 빛의 볼륨을 다감각적으로 형성시키고 최적의 비례와 스케일을 통해 장소와 계절의 시간을 건축 공간 안에 정박시킨다. 이러한 반음영의 중첩은 질감과 촉각적 경험을 형성하여 관람자의 정서적 지각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물과 유리의 물성을 통한 중첩된 레이어를 계획하여 물질의 간접적인 형상을 투사하거나, 유동적인 빛과 다채로운 색의 발광 및 투영을 형성하여 다감각적인 공간의 환기와 감응을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공간과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은 인간의 인식과 지각의 경험에 그 본질을 두고 있으며, 지각과 인식의 체적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현상적 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학적 관점에 의한 뮤지엄 건축공간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체험하는 장(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상학적 건축개념에 입각하여 건축공간을 디자인하는 건축가 스티븐 홀의 공간구현 방법과 그 기본이 되는 현상학적 건축개념들과의 관계성을 고찰하여, 현대의 뮤지엄 건축에서 요구되는 '의미생성'의 장으로서의 공간 디자인 방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스티븐 홀은 지속적으로 강연과 글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구현된 자신만의 독특한 콘셉트와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수채드로잉을 통해 끊임없이 유기적인 다양한 형태와 현상적 공간구성에 대해 탐구한다. 이렇게 수립된 개념들은 그의 건축적 담론으로 축적되어 현상적 공간을 구현하는 직관적인 영감을 설정하며 다양한 공간체험을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은 크게 3가지로(Anchoring, Intertwining, Parallax)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념들은 환경, 감각, 움직임이라는 의미와 함께 Parallax를 중심으로 서로 관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개념의 관계성은 '건축과 환경의 관계맺음'과 '다감각을 통한 지각적 사고의 융합'을

통해 현상적 공간을 구현한다.

이렇게 도출된 현상학적 개념과 구현방법을 통해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공간을 분석한 결과 시선의 확장, 시점의 전환, 시차의 병합 등 관람자의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장면을 형성하여 내부와 외부의 연속적인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지의 지형과 기후에 순응하는 구조를 결합시켜 장소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프로그램과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빛과 그림자, 색의 투영 등을 통해 다감각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하며, 음영대비와 표면질감의 변화를 통해 촉각적 감각을 배가시킨다. 또한 기하학적인 비례와 스케일의 변화를 통해 빛과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게 하고, 재료의 물성을 통한 다감각적 지각을 체험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스티븐 홀의 뮤지엄 건축에 구현된 다양한 현상적 공간체험은 건축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장소적 경험을 생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장소와 융합된 공간의 현상적 체험은 빛과 색, 시간의 응축에 의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관람자의 지각적 사고를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스티븐 홀의 현상적 공간 구현 및 디자인방법은 정서적 의미생성을 촉진시키는 장으로써 현대의 뮤지엄 건축공간의 디자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2. 메를로 퐁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3. 스티븐 홀, 이원경 역,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미메시스, 2012
4. 유하니 팔라스마, 김훈 역, 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1993
5. 존 듀이,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13
6. 존 포크 외, 노용 외 역, 박물관 교육이 기본, 미진사, 2007
7. 최석영, 하인의 구성주의 박물관 교육론, 민속원, 2012
8. 현대건축사편집부, STEVEN HOLL, 현대건축사, 2006
9.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10. Steven Holl, Intert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11.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12. Steven Holl, Luminosity/Porosity, TOTO出版, 2006
13. Steven Holl 외, Questions of Perception, William K Stout Pub, 2007
14. Steven Holl, Color Light Time, Lars Muller, 2012
15. 二川幸夫, スティーヴン・ホール作品集 第1巻 1975-1998, ADA エディタトーキョー, 2012
16. 二川幸夫, スティーヴン・ホール作品集 第2巻 1999-2012, ADA エディタトーキョー, 2012
17. 추여명, 의미구성으로서의 뮤지엄 교육, 홍익대 석사논문, 2013
18. http://www.stevenholl.com/

[논문접수 : 2016. 04. 09]
[1차 심사 : 2016. 04. 21]
[게재확정 : 2016. 04. 25]